

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현황과 과제

- 중소기업 지식재산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요 약

우리나라는 세계1위 규모의 GDP 대비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 R&D 투자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지식재산 관련 역량 증대가 중요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지표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해외특허 내지 특허의 질과 관련된 지표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든챔피언의 지식재산 역량은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창출 전략에 있어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지식재산 활용 선순환체계 개선, 지식재산 권리 보호 장치의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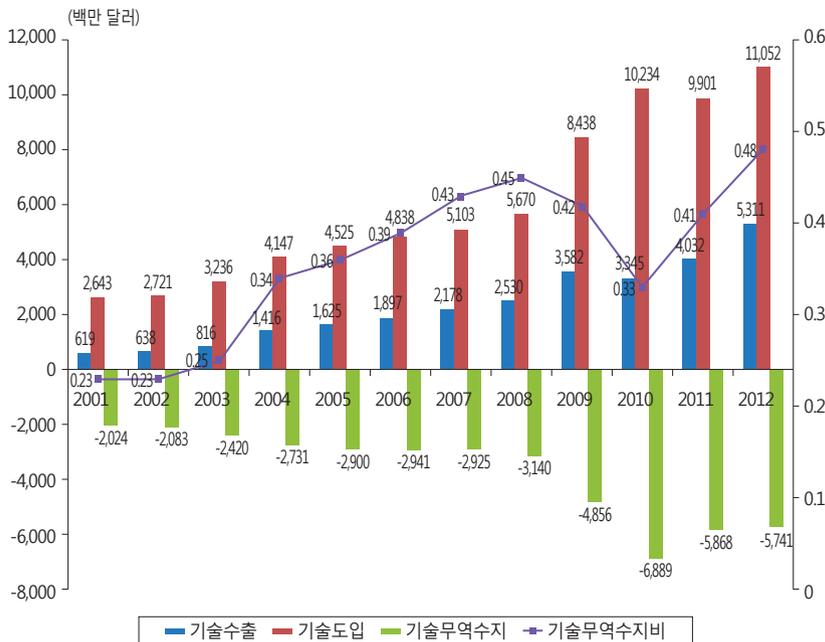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2007년 29억 달러에서 2012년 57억 달러로 커지고 있는 등 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효율성 저하의 원인은 다양하나,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 결과물 중 하나인 지식재산 관리의 상대적 부재도 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창

출규모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활용에서는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¹⁾

본고에서는 ‘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현황과 과제’에서 지식재산 종류별 현황과 시사점을 언급한데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지식재산 및 경영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R&D 지원에 있어서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김상훈, 심우중, 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현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4년 11월, p.35.

〈그림 1〉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현황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2013을 산업연구원(KIET) 재가공.

2.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및 지식재산 현황

투입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지출 수준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59조 3,000억원(2013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및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권에 해당되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공공재원은 14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24%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중은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²⁾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 활동 역시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대기업 연구개발비는 기업 전체의 76.8%(35조 7,782억원)를 차지할 뿐 아니라,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여전히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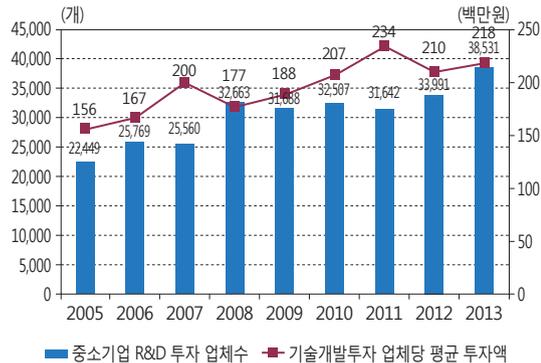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R&D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중소기업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공공재원 증가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공공재원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R&D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은 2013년 기준으로 3만 8,531개이며 평균 2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규모는 2003년 1,740억원에서 2015년 9,57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2) 오윤정, 도계훈, 안병민, 정고은, 이원홍, 「201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분석 보고서」, KISTEP, 2015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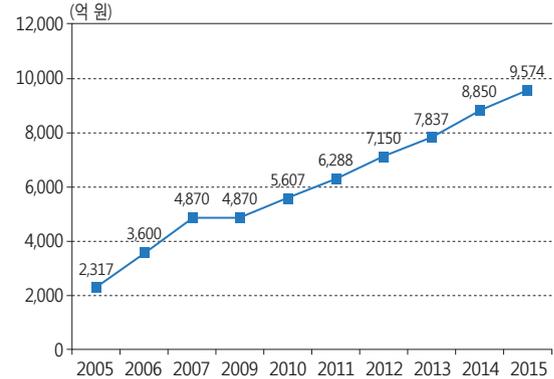
3) 김용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 KISTEP, 2012년 3월

〈그림 2〉 중소기업 R&D 투자 추이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 각년도.
주: 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 기준.

〈그림 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 R&D 예산 추이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각 연도.

연구개발 활동의 정부 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절대적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종업원 250인 미만) 정부공공재원은 9억 5,700만 달러(2010년)로 비교 대상국가 중 미국(43억 900만 달러, 2007년) 다음으로 높다⁴⁾.

한편, 연구개발 산출관점에서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 추세는 두드러지고 있으나, 질적 성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2012년 기준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국내 특허등록 건수는 1,882건(16.9%)으로 대학의 4,505건(40.5%), 출연연 3,231건(29.1%) 다음이며, 연평균증가율(2008~2012) 또한 국공립 연구소의 27.3%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양적인 성과 측면에서 양호한 수

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등록 특허의 질적성과에 대한 수준 측정 결과⁵⁾,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상위등급인 S 및 A등급 비율은 2008년 10.7%에서 2012년 27.3%로 증가 추세임에 반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S등급은 전무하고, A등급 역시 2008년 40%에서 2012년 13%로 급격하게 감소할 뿐 아니라, 최저등급인 C 등급은 같은 기간 26.7%에서 41%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의 핵심 성과 중 하나인 지식재산은 궁극적인 목표인 사업화와 수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율성이 낙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연구개발 성과환류 체계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종업원 250명 미만 주요국 정부공공재원 비중 : 우리나라 14.6%(2010), 독일 11.2%(2007), 미국 10.2%(2007), 프랑스 8.9%(2008), 영국 2.4%(2008)

5) 특허정보원의 K-PEG분석에 의함(엄익천 외,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미래부, KISTEP, 2013. 12

3.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경영성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의 산출물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이 부족하며, 이는 경영성과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 지식재산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먼저,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어떠한 지식재산 지표들이 영향이 있는지 보기 위해 2013년에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8,842개 중소기업의

특허지표들과 경영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지표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7가지 요인 변수로 정리하고 이들과 경영성과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표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과 수익성의 대표적 성과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들의 각기 다른 특허 지표와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는 다양

〈표 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경영성과의 상관분석 요약

	매출액	매출액/종업원수	영업이익	영업이익/종업원수
해외특허특성(누적수)	○	○	○	○
국내 특허등록률	○			
해외 특허평균값 (패밀리 및 삼극특허)	○	○	○	○
해외 특허증가율	○	○		○
국내 특허증가율	○	○	○	○
미국 특허활용 횟수		○	○	
국내 등록특허수	○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자체 분석 자료.
 주 : 상관관계 계수가 0.4 이상을 표시함.

한 특허관련지표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을 살펴 보면 국내특허수, 등록률, 증가율뿐 아니라, 미국 특허 출원, 등록, 삼극특허 등의 해외특허 관련 지표와 패밀리 특허 등도 다양한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업별 규모를 고려한 종업원수 대비 매출액은 국내 특허등록률보다는 실제 특허활용 횟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해외특허 증가가 영업이익에는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종업원수 대비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국내 특허보다는 해외 특허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측면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 요인은 해외특허 누적수, 패밀리 및 삼극특허수, 국내특허 증가율이 공통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특허 활동은 물론, 이와 같은 자국 특허를 기반으로 주요 해외에서도 활발한 특

허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글로벌 강소기업의 지식재산 현황과 특징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을 기준으로 글로벌 히든챔피언⁶⁾을 선정한 바 있다. 수년 전 히든챔피언의 개념이 소개된 이후 다양한 후속 연구가 있었으며, 국가별, 기관별 또는 저자별로 다른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⁷⁾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입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히든챔피언 사업과 2014년 발표된 한국형 히든챔피언이 대표적

6)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의 저서를 통해 알려졌으며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 또는 소속 대륙에서 1위, 매출액 40억 달러(50억 유로) 이하, 대중에게 잘알려져 있지 않음을 선정 기준으로 정의

7) 독일 : 개인·가족 소유 구조, 세계시장 1~2위 수준이거나 유럽시장 1위 경쟁력, 연 매출액 80억 유로 이하의 작은 규모의 기업, 낮은 대중 인지도. 미국 : 10년간 영업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이거나 총자산 이익률 8% 이상이며,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하. 핀란드 : 좁은 틈새시장에서 활동, 세계시장 1~3위 수준의 경쟁력, 매출액 30억 유로 이하, 낮은 대중 인지도. 그리스 : 세밀하게 정의된 시장범위, 소비자/공급자 관계, 운영/전략 혁신과 기술적 우수성, 인적자원 및 리더십 분석

〈표 2〉 기관별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개념

히든챔피언(한국 수출입은행,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단, 외감법인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SW개발·공급 기업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기술력(기술개발투자, 기술개발 추진능력, 기술혁신성 등) · 성장잠재력(시장 및 기업성장잠재력, 중장기 사업계획 등) · CEO 역량(경영역량, 기술역량 등) · 재무건전성(수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재무등급)
한국형 히든챔피언(안 중소기업청,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 지배력(세계시장 점유율 1~3위) · 중간규모 기업군(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 매출 100억원(3년 평균)) · 집중적 연구개발(매출액 대비 R&D 비중 2% 이상(3년 평균)) · 글로벌화 지향성(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 이상(3년 평균)) · 인재육성 친화도(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업종 평균 이상) · 독자적 성장기반(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 비중 50% 미만) · 추가 요건(매출 100억원 또는 수출 100만 달러 이상(3년 평균))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사업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hidden/business/process.jsp>), 중소기업청(2014), 「한국형히든챔피언 육성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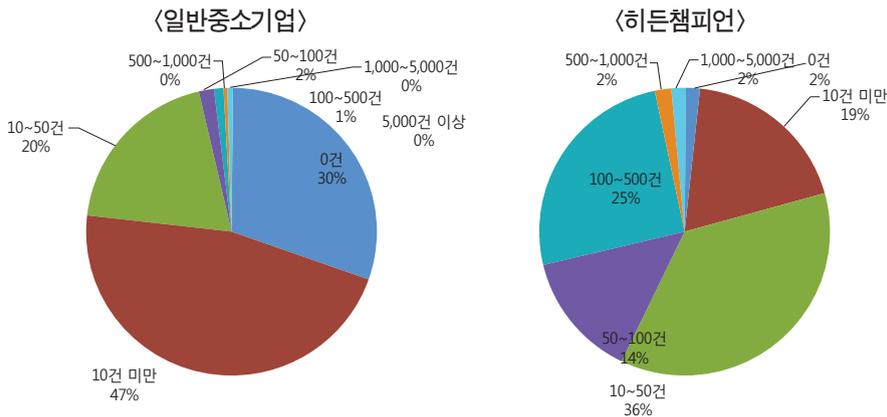
이다. 이들이 정의하고 있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기준은 〈표 2〉와 같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세부 기준은 일부 상이한 요소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세계시장 경쟁력과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강소기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소기업의 내부역량을 지식 재산 역량으로 보고 강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R&D 지원을 받은 일반중소기업 8,422개와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에 부합하는 63개의 특허 출원·등록 현황, 기타 산업재산권 현황, 유효특허 비중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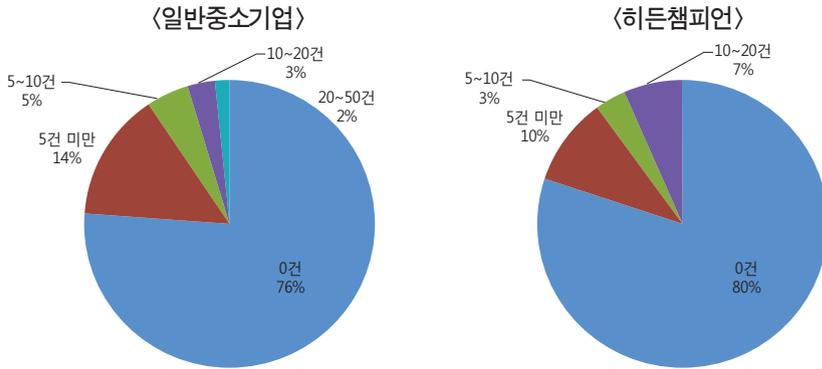
먼저, 국내특허의 출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보유특허는 일반기업 23.7건, 히든챔피언이 112.8건으로 히든챔피언이 월등히 높으며 일반 중소기업 중 특허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그림 4〉 기업분류에 따른 국내 특허 출원·등록현황



자료 : 산업연구원(KIET) 내부 연구 자료.

〈그림 5〉 기업분류에 따른 기타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자료 : 산업연구원(KIET) 내부 연구 자료.

〈표 3〉 표준산업중분류별 유효특허 비중 비교

단위 : %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일반기업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수출입은행)	한국형 히든챔피언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3)	85.6	100	79.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74.1	71.4	
가족,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75.9	55.6	
코코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93	75.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81.5	92.6	86.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76.3	82	75.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81	87.1	98.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78	81.3	77.8
1차 금속 제조업(C24)	78.6	92.5	96.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88.4	83.9	73.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62.4	88.4	89.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87.9	96.9	87.9
전기장비 제조업(C28)	78	95.9	58.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87.9	94.1	85.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47.8	95.5	86.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84.2	93.1	90.2
가구 제조업(C32)	90.4	91.8	
기타 제품 제조업(C33)	78	100	
도매 및 상품중개업(G46)	72	90.6	
출판업(J58)	86.2	94.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87.4	100	
전문서비스업(M71)	27	66.7	88.9

자료 : 정찬식,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의 특허 현황, 지식재산정책 16호, 2014.03과 산업연구원 내부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

30%, 히든챔피언은 대부분 1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산업재산권(특허를 제외한 산업재산권)은 일반기업이 평균 0.41건, 히든챔피언은 1.46건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은 기타 산업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5건 미만인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히든챔피언 개념에 부합하는 기업일수록 등록대비 유효특허(출원 및 등록 후 실효한 특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과 2014년 한국형 히든

챔피언 기준(안)에 따른 히든챔피언을 대상으로 표준산업분류별(중분류) 특허 등록 대비 유효특허 비중을 비교해 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전문서비스업의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 히든챔피언 기준 모두 유효특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기의 산업군에서는 일반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국내 산업경쟁력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전반적 생태계에 대한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의 경우, 단순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미활용 특허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현 시점에서의 창출 전략은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즉, 지식재산이 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를 고정(Fixation) 또는 전유화(Appropriation)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줄이고, 기업 자산으

로 실질적 내재화가 가능한 질적 수준이 높은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식재산 활용 선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실효자산화 촉진이 요구된다. 최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규모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선순환 체계 정립은 미흡하다.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식재산은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단순한 연구개발성과물 중 하나가 아닌, 기업의 중요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식재산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원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990년에는 담보권 설정된 특허수가 약 700여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그 수가 5만 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등록 후 5년 이내에 담보권

이 설정되는 특허의 비율은 1980년대에는 약 2%에서 2010년대에는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⁸⁾.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특허의 담보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담보화 특허는 등록 후 2~5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⁹⁾. 이들 국가에서 특허 담보화 건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전기전자, 화학, 의료제약, 기계, 플라스틱, IT 산업분야¹⁰⁾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제약, 데이터 처리, 의료기기, 전자부품, 통신장비, 컴퓨터, 자동차 등 최근 20년간 연구개발 성장률이 급격한 분야에서 발생한 특허가 타분야 특허 대비 높은 비율로 담보권 설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개발 성과로 산출된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자산으로 고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이를 활용한 단순 제품화뿐 아니라 지식재산 자체를 상품화 또는 자산화할 수 있는 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 주력 기업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지식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 역시 중요하다.

셋째, 기업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를 기반으로 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8) William Mann, *Creditor rights and innovation : Evidence from patent collateral*, UCLA, Jan(2015).

9) Jianwei Dang, Kazuyuki Motohashi, *Patent value and liquidity : evidence from patent-collateralized loans in China*, IAM Discussion Paper No.26, Tokyo University, Jul(2012)

10) 우리나라에서 하든챔피언(육성대상기업) 중 일반기업 대비 유희특허가 많은 산업분야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보호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전담 조직 및 인력은 물론 역량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한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외국기업의 특허소송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9건이었던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특허소송은 2009년 52건, 2010년 6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에서의 분쟁 조정 또는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나 분쟁 시 대응 지원을 위한 정책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 또는 산업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총괄적이고 현실적 지원이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별로 분쟁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중소기업 내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지식재산 권리 보호 장치의 강화 역시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 기준이 외국과 많은 점에서 상이하여,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경은 권리침해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것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지식자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 손해배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많은 국내 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 위주의 수직적인 하청 구조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미래 아이

템을 위해 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대기업에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장애 요인을 일부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컨설팅, 회계, 법률,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포함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들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또는 제품이 세계화가 추진된다면 기존의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보가치 산정

및 설정 방법 개발, 부실담보 처분체계 마련, 서비스 표준 업무 절차 개발 등 역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지식재산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복잡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수익분배구조의 정립이 중요하다¹¹⁾. 즉, 사업화추진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 간의 포괄적이며 동시에 구체적인 계약을 통해 적절한 수익분배구조를 구성하여, 수익실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1) 김상훈 외, 미래산업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4-708, 산업연구원, 2014.12.



김상훈

신성장산업연구실·연구위원
sanghoon_kim@kiet.re.kr / 044-287-3181

〈주요 저서〉

-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 방안(2014, 공저)
- 미래산업의 열쇠, 뿌리산업(2014, 공저)



김승민

신성장산업연구실·연구위원
ksmark@kiet.re.kr / 044-287-3013

〈주요 저서〉

-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 방안(2014, 공저)
- 사물인터넷시대 안전망, 융합보안산업(2014, 공저)